

2015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의 생활

메시지 14

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생활함

성경: 계 4:11, 단 4:3, 34-35, 애 5:19, 롬 9:15-16, 18-23, 히 4:16

I.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— 단 4:3, 34-35, 롬 9:18-23.

- A. 주권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과 위치를 가리킨다 — 계 4:11, 5:13.
1. 주권적인 분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 뒤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— 왕상 22:19.
 2.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수 있는 완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 — 단 4:34-35, 엠 1:4-5, 9-11.
- B.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킨다.
1. “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?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.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? 빛어진 것이 빛은 이에게,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” — 롬 9:19 하-20.
 - a.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.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— 사 42:5.
 - b. 그분의 창조물로서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저항하거나 창조자이신 그분께 말대꾸하지 말아야 한다 — 롬 9:20.
 2. “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,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?” — 롬 9:21.
 - a.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진흙덩이이다.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— 렘 18:1-6.
 - b. 토기장이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다. 우리와 관련하여 그분은 그분이 갈망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다 — 사 29:16, 64:8.
 - c.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분은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,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실 수 있다 — 롬 9:21.
 3.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담는 그릇이 되도록 창조하셨다 — 고후 4:7, 딤후 2:20-21, 엠 1:5, 11.
 - a.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긍휼의 그릇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신 것은 그분의 주권이다 — 롬 9:23.
 - b. 귀하게 쓸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다 — 롬 9:21.
 - c.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선택의 기초이다.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 — 롬 9:11, 18, 11:5, 28.
 4. “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?” — 롬 9:23.

- a.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을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만드실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다.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— 롬 9:11, 18, 23-24.
- b.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셨다 — 롬 9: 23.
 - (1) 우리는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도록 그분의 주권에 의해 미리 정해졌다.
 - (2)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용성의 절정 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신 목표이다 — 롬 9:11, 18.
- C. 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다(출 4:21, 7:3, 9:12, 10:1, 20, 27, 11:10, 14:4, 8). 또 다른 면에서 바로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다(출 8:15, 32, 9:34).
 - 1.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(롬 9:14-24)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 - 2.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 의지는 상응하는 것이며 반대되지 않는다.
 - 3.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주권 안에서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고(출 4:21), 바로는 자신의 자유 의지를 통해 이러한 굳어짐을 수행했다.
- D. “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” — 애 5:19.
 - 1. 19 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위치와 각도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과 바뀌지 않는 행정을 언급한다.
 - 2.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로잡혀 갔지만,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시기 위해 계속 계신다.
 - 3.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심과 그분의 보좌는 그분의 자애와 동정과 신실보다 더 높다. 하나님의 자애와 동정은 변동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격과 통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— 애 3:22-23, 5:19.
 - 4.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위격과 그분의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왕국인 그분의 통치에 있어서 완전히 계시되실 것이며 그 둘은 모두 그분의 백성을 대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다 — 히 12:28, 계 22:3.

II. “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…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,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,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.” — 롬 9:15 상, 16.

- A.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멀리 미치는 것으로서 그분의 은혜나 사랑보다 더 멀리까지 간다 — 마 9:13.
 - 1. 우리의 천연적인 상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었다.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긍휼 뿐이었다 — 엡 2:4.
 - 2.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회를 제공했고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었다 — 롬 11:32.
- B. 우리의 관념은 원하는 사람이 얻게 되고 달리는 사람이 목표로 달렸던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— 롬 9:16.
 - 1.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따른 것이어야 했을 것이다.
 - 2.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거나 달릴 필요가 없다.
 - 3.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우리의 실패로 실망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.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— 엡 2:4.

- C.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그분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— 롬 9:15-16, 히 4:16.
1.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분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감사할 것이다 — 롬 9:15.
 - a. '주권적인 긍휼'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의미한다.
 - b.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다 — 롬 9:18.
 - c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— 롬 9:15-16, 23.
 2.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해 끌리게 된다.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추구한다 — 렘 29:13, 신 4:29, 사 55:6.
 3.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임을 더욱더 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더욱더 감당하게 될 것이다. 그러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자원함도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이다.
 4.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응했고 다른 이들이 말씀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받아들였으며 다른 이들이 주님의 회복의 길에서 물러섰을 때 우리는 이 길을 취했다.
 5. 하나님의 회복과 관련하여 그분은 그분께서 긍휼을 보이실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.
- D. 로마서 9 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원칙을 계시한다 — 롬 9:15-16.
1.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들에게 발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— 롬 9:16, 23.
 2.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그분의 긍휼을 분명히 만진 때가 최소한 한번은 반드시 있다 — 엡 2:4, 마 9:13.
 - a.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눈이 적어도 한 번은 열릴 필요가 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한 번은 반드시 보아야 한다.
 - b. 우리가 이것을 모두 한 번에 보든지 혹은 과정을 통해 그것을 깨닫든지 우리가 이 문제를 만지는 순간 우리는 느낌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접촉한다. 이 사실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.
- E. “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,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.” — 히 4:16.
- F.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.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.
1. “아버지, 우리가 당신의 긍휼 누려/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신선해, / 아침마다 우리에게 뿌려지니/이슬처럼 신선케 하네/우리들 얼마나 누리는지! 우리를 얼마나 누리는지! / 당신께 찬미의 이슬 드리네”—영어 찬송 26 장, 5 절(직역).
 2. “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넘치는 긍휼,/ 우리 얻었네,/ 당신의 긍휼 안에 얼굴 맞보며/영영 거하리/ 당신의 긍휼 인해 당신을 경배하리/ 우리 평생에 영원 영원히”—영어 찬송 25 장, 3 절(직역).